



시민건강이슈 2017-11

PHI Issue Paper 2017-11

지역 경제위기가
건강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PHI Issue Paper 2017-11

시민건강이슈 2017-11

지역 경제위기가 건강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출판일 || 2017년 11월 14일

편집인 || 이주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공동저자 ||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가나다 순)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익한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전공의
 김진환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전공의
 박주영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이주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정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숙자 중앙대학교 적십자 간호대학 조교수

펴낸 곳 || (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3길 36, 2층
 전화: 02-535-1848 팩스: 02 581-0339
 누리집: www.health.re.kr
 전자우편: phikorea@gmail.com

들어가는 말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6년 9월부터 ‘지역 경제위기의 건강영향’ 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 연구는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 산업침체가 가져온 경제위기, 그로부터 초래되는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문제를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2014년부터 지속된 한국 조선업의 위기가 실직 노동자와 가족 구성원, 나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기 위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공장폐쇄, 탈산업화의 지역사회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1차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들로부터 지역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환경과 소득의 변화, 개인/지역수준에서의 의료 이용과 건강행동,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검토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다. 특히 한국 사회보다 앞서 유사한 지역 경제위기를 겪었던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의 사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함께 논문을 읽고 토론하면서 확인한 것은,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족의 삶과 건강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실업의 부정적 영향에 더욱 취약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진 사회에서는 사업장 폐쇄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중앙/지방정부가 탈산업화에 의한 지역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산업의 점진적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면 사업장 폐쇄 후에도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는 보다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탈산업화는 불가역적 변화이지만 탈산업화의 파장은 우리 사회가 이것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간략한 이슈페이퍼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지역 경제위기에 대한 논의가 기존의 성장담론에서 벗어나 노동과 삶에 큰 타격을 입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공장폐쇄, 탈산업화의 지역사회 영향] 세미나 참여자 일동

< 차례 >

들어가는 말	iii
1. 서론: 조선업 경기침체를 중심으로 본 지역 경제위기	1
2. 이론적 틀과 근거 종합의 방법	3
2.1. 이론적 틀	3
2.2. 근거 종합의 방법	4
3. 지배적 산업 침체의 지역사회 영향	6
3.1. 사업장 폐쇄와 실직 노동자	6
가. 실직 노동자의 노동시장경험	6
나. 실직 노동자의 건강	10
3.2. 사업장 폐쇄와 실직 노동자 가족의 삶	16
가. 배우자	16
나. 자녀	18
3.3. 지역 경제위기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19
4. 결론	22
참고문헌	24

〈표 차례〉

<표 1> 사업장 폐쇄가 실직 노동자의 노동시장경험에 미치는 영향	27
<표 2> 사업장 폐쇄가 실직 노동자/배우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30
<표 3> 사업장 폐쇄가 출산, 이혼, 자녀의 학업/노동시장경험에 미치는 영향	34

〈그림 차례〉

<그림 1> 이론적 틀	5
--------------------	---

1. 서론: 조선업 경기침체를 중심으로 본 지역 경제위기

2013년 말부터 시작된 조선업 경기침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무역규모가 감소하면서 전방산업인 해운업이 위축되었고, 이는 조선업의 침체로 이어졌다. 이러한 침체국면은 현재까지도 이어져서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몰락하였고 대규모 노동력이 일자리를 잃었다.¹⁾

조선업은 세계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공간적·조직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 때문에 조선업의 침체 또는 성장은 한 지역사회의 고용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조선업 위기를 일시적 침체로 보고 있다. 노후 선박의 대체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주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한다.¹⁾ 하지만 조선업 경기가 회복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 경기침체는 당장 내년부터 회복된다 할지라도 세계 경기변동에 따라 10년 뒤, 20년 뒤에 또다시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선업도 미국 디트로이트, 스웨덴 말뚝 등 서구 국가에서 경험한 탈산업화와 세계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정부와 언론은 한 목소리로 조선업 구조조정만이 해답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업체의 관점에서 구조조정은 인원을 감축하고 조직을 매각, 폐쇄하는 ‘규모의 조정’을 통해 재무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구조조정은 대량해고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러한 대량해고의 희생자는 대부분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위기의 영향은 매우 불평등하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중노동시장 구조는 조선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은 경기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경기침체의 고통을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되는 수많은 실직자들에게 남겨질 상흔에 대한 사회적 고민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또한 지리적 집중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산업화에서 지역 경제를 책임지던 한 산업의 침체 영향은 노동자 개인과 가족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경기변동에 따라 침체와 회복을 반복하는 조선해양산업의 한 가운데 혹은 주변 부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더 넓게는 지역사회가 겪는 변화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1) [희망 찾는 조선업] 희미한 새벽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17.02.25. 경향신문 (<https://goo.gl/bHvCkA>).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조선업 경기침체를 둘러싼 지역사회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공장폐쇄, 탈산업화의 지역사회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제 1차 세미나의 결과물이다. 선행 연구들로부터 지역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환경과 소득의 변화, 개인/지역수준에서의 의료 이용과 건강행동,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보다 앞서 유사한 지역 경제위기를 겪었던 영국과 호주, 미국 등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고자 한다.

2. 이론적 틀과 근거 종합의 방법

2.1. 이론적 틀

본 연구는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 산업침체가 가져온 지역 경제위기, 그로부터 초래되는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문제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의 건강에 대한 인과적 영향을 밝히려는 선행 연구들은 개별 노동자의 성향이나 건강악화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혼란효과를 통제하는 데 많은 기술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생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나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거나, 사업장 폐쇄/정리해고라는 외생변수를 활용해왔다. 그 중에서도 ‘사업장 폐쇄’는 노동자 개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발생하는 일종의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상황으로 간주되어 왔다.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은 경기변화에서 비롯한 “외인성 exogenous” 실직으로, 개별 노동자의 성향이나 건강악화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내인성 endogenous” 실직과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업장 폐쇄’는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기보다 실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셋팅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가 실업의 한 원인으로 ‘사업장 폐쇄’에 주목하는 것은 기술적인 이유를 넘어선다. 사업장 폐쇄가 실업 노동자와 가족 구성원,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원인에 의한 실업, 예컨대 자발적 실업이나 해고와 비교할 때 영향의 크기와 경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폐쇄는 한 지역에서 대량의 실업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유사한 자격을 갖춘 다수의 실업자가 노동시장에 던져졌을 때 일자리 기회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사업장이 폐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전망이 가장 어두운 집단일 수 있고, 그 만큼 사업장에 대한 결속력이 높고 현재의 일자리에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유동성 낮은 노동자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주도하던 지배적 산업의 침체는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은 다른 이유로 인한 실직보다 삶과 건강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사업장 폐쇄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개인적인 이유로 해고당하는 것보다 덜 해로울 수 있다.²⁾

‘사업장 폐쇄’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규모 실업에 대한 지역사회 또는 중앙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과 함께 경제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한다면, 개별적 사건, 개별적 보호를 넘어서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2.2. 근거 종합의 방법

실직과 건강의 상관성을 평가한 개별 연구는 상당히 방대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항상 일관된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와 연구방법,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이 실직 당사자와 가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실직과 건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들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종합하여 명시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고 특정 결과의 맥락이나 기전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론 평가는 여기에 적합한 한 가지 방법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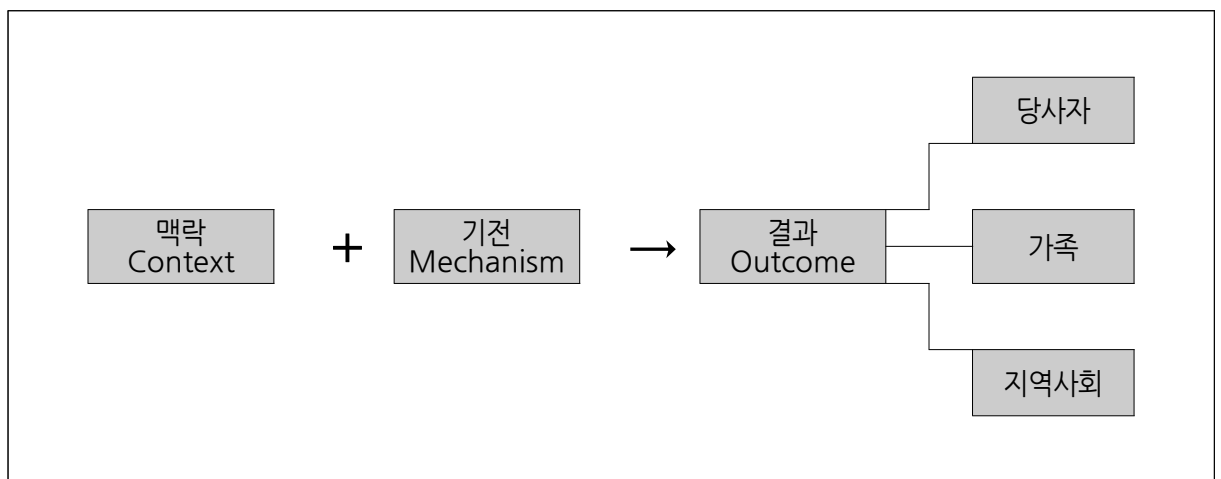
이번 이슈페이퍼는 실재론 관점의 근거종합에 따라, 사업장 폐쇄가 특정한 결과(Outcome)로 이어지게 하는 기전(Mechanism)과 그 기전이 작동하는 맥락(Context)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림1>의 이론적 틀에서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의 영향은 ① 사업장 폐쇄가 실직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②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③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구분하였다.

첫째, 개인수준에서 사업장 폐쇄는 실직 당사자를 장기간 실업 상태에 빠뜨릴 수 있고, 취직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 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경험은 가구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비/지출 행태를 변화시킨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은 주관적·객관적 건강수준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기존의 직무가 육체노동 강도가 높고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졌다면 실직은 건강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생계 부양자의 실직은 부부 관계를 변화시키고, 배우자의 노동시장참여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삶의 결정적인 시기에 부모의 실직을 경험한다면, 그 영향은 자녀의 학교생활과

이후 노동시장경험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지역 경제를 주도하던 지배적 산업의 침체 영향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서구에서 시작된 산업화는 지리적으로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단일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생겨난 여러 도시들은 탈산업화의 영향으로 쇠퇴하였다. 많은 제조업 공장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하였고,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필요한 노동력의 규모도 줄어들었다. 이렇듯 사업장 폐쇄는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그림 1> 이론적 틀

3. 지배적 산업 침체의 지역사회 영향

3.1. 사업장 폐쇄와 실직 노동자

가. 실직 노동자의 노동시장경험

사업장 폐쇄가 실직자의 재고용, 소득수준,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북유럽, 서유럽,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들은 사업장 폐쇄로 실직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일 자리에 재고용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⁴⁾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장 폐쇄 또는 대량해고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은 소득 손실에서 점진적으로 회복하지만,⁵⁾ 자발적 실직자 또는 이직자와 비교했을 때 사업장 폐쇄로 실직한 노동자의 경우 소득 손실이 장기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⁶⁾ 특히 제조업에서 해고되어 비-제조업 부문에 재고용될 경우 소득 손실 규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⁷⁾

이번 장에서는 셔틀워스 등(2005)⁸⁾이 사업장 폐쇄 이후 노동자들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목한 세 가지 차원 ① 노동자 개인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경험의 차이 ② 지역 노동시장의 영향 ③ 정책 개입의 효과성과 활용을 기준으로 사업장 폐쇄가 실직자의 노동시장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노동자 개인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경험의 차이

연구들은 사업장 폐쇄로 실직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폐쇄가 실직한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크기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업장 폐쇄는 실직 노동자의 연령, 숙련도, 사회적 위치와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 불평등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연령과 숙련도는 사업장 폐쇄는 이후 재고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잉글랜드 북동부 타인사이드(Tyneside)에 위치한 스완 헌터(Swan Hunter) 조선소 폐쇄를 배경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자.⁴⁾ 조선소 폐쇄 2년 후 2,200명의 실직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응답한 1,645명(75%)의 노동자 중 44%만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38.5%는 계속 실

업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50에서 59세 연령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았고, 미숙련 육체노동자(72%)의 경우 관리자(33%), 사무직(45%), 설계직(39%), 숙련 육체노동자(60%)보다 실업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오랜 경력을 지닌 높은 연령의 노동자들은 실직 이후 훨씬 큰 규모의 소득 손실을 경험하고 노동시장에서 재고용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령의 노동자들은 특정 산업 부문에 특화된 인적 자본을 장기간 축적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까지 축적해온 인적자본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된다.⁹⁾

스웨덴 고용주-고용인 연계자료와 독일 고용 이력 패널을 이용한 연구¹⁰⁾에서도 조선업 근무 경력이 오래된 높은 연령의 노동자일수록 조선업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도 일자리 이동을 하지 않았고, 조선업을 떠나게 되면 실업에 빠질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코네티컷(Connecticut)의 분기별 고용임금 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연구⁷⁾에서도 대량해고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해고 직후 분기 소득 손실 규모가 크고(해고 직후 분기 소득 손실은 40세 20% vs. 64세 58%), 연령이 낮을수록 실직 이후 소득 손실에서 비교적 빨리 회복한다고 보고했다(해고 6년 이후 분기 소득 손실은 40세는 14% vs. 60세는 53%).

하지만 미국 국가청년조사를 이용하여 1987년 당시 12-22세인 청년 12,68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 3년 후 동일 연령대의 실직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실직자의 연간소득이 12% 낮게 나타났다. 시간당 급여는 남성은 13.4%, 여성은 7.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 다시 말해, 사업장 폐쇄로 실직한 젊은 노동자들은 나이든 노동자에 비해서는 재고용의 문턱이 낮고 소득 손실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지만, 사업장 폐쇄를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된 또래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노동시장 성과가 장기간 저조하였다.

또한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은 사회적 위치가 낮은 집단에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 노르웨이의 고용주-피고용인 연계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경제 불황기(1996-97년)와 경제 호황기(2001-02년)의 실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¹²⁾ 그 결과, 사업장 폐쇄는 노르웨이 출신자보다 이주민에서, 특히 경제 불황기에 고용률을 감소시키고 근무 일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진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에서도 경제 불황과 사업장 폐쇄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집단에게 가장 치명적이다. 특히 미숙련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장 폐쇄 이후 다른 사업체로 재고용되기 더욱 어려웠다.

● 지역 노동시장의 영향

사업장 폐쇄가 실직 노동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의 경제적 환경을 둘러싼 여러 조건들(예. 경제 불/호황기, 지역 노동시장의 흡수역량)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소개한 노르웨이 연구¹²⁾에서도 특히 경제 불황기에 이주민의 재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도 고용주-피고용인 연계자료를 이용하여 1986년에서 1987년 사이 사업장 폐쇄로 실직한 사람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장기 추적하였다.¹³⁾ 사업장 폐쇄로 실직한 사람들은 2년이 지난 후 비실업자 대조군과의 실업률, 고용률 격차가 감소했지만, 스웨덴 경기침체의 정점이었던 1993년에 격차는 다시금 벌어졌고 1999년이 되어서도 9년 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동일 연구에서 1986-87년 사업장 폐쇄로 실직한 사람의 연간 소득은 더디게 회복하였는데, 2년 후에도 비실직자와 US\$723의 높은 격차가 관찰되었다. 이처럼 경기침체에 발생한 사업장 폐쇄는 실직자의 재고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Belfast)에 위치한 할랜드 앤드 울프(Harland & Wolff)도 1970년부터 시작된 탈산업화의 영향으로 100여 년 동안 가동해왔던 조선소를 2003년에 폐쇄하게 되었다. 하지만 서틀워스 등(2005)⁸⁾은 2000년 할랜드 앤드 울프의 조선소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 500명의 해고 이후 노동시장경험이 절망적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 노동시장의 일자리 기회가 풍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영국 내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전하는 상황 속에서도 벨파스트 지역은 엔지니어링과 항공우주산업에서 노동수요가 높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정리해고 1년 후에 거의 80%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고용되었고 실직자 비율은 정리해고 6개월 이후 23%에서 10%로 감소했다. 재취업에 성공한 노동자의 절반이 벨파스트의 엔지니어링 회사에 고용되었고 이들 중 25% 이상이 북아일랜드 항공우주산업에 고용되었다. 특히 항공우주산업은 조선소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동의 제약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정리해고 이후 노동자들의 경험은 지역의 노동수요와 고용 기회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스웨덴과 독일에서도 지역의 노동시장 수요가 조선소 폐쇄로 실직하게 된 노동자의 재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¹⁰⁾ 연구진은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을 ① 조선업 특화 정도, ② 산업의 다양성, ③ 조선업과 기술 관련성이 높은 산업의 규모로 측정하였다. 서독과 스웨덴 모두, 조선업에 특화된 정도가 높은 도시에서 조선업 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게 되면 장기 실업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조선업 위기가 절정인 시기에

지역 산업의 다양성은 실업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달한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 기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 조선업과 기술 관련성이 높은 산업(예컨대 기계공학, 금속, 제철 등)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일수록 조선업 침체기에도 노동자들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 지역의 경제가 경제위기에 적응하고 그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침체하는 산업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을 성장하는 산업으로 생산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 개입의 효과성과 활용

베일리 등(2012)¹⁴⁾은 사업장 폐쇄에 대한 즉각적인 정책 대응의 효과성과 지역의 장기적 경제 전략이 사업장 폐쇄로 실직한 노동자의 고용가능성과 노동시장 재흡수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영국에서도 지난 30년간 세계화와 기술의 변화로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제조업에서 탈산업화는 급격하게 진행되어 지금의 ‘후기 산업도시’가 등장하게 되었다. 금융, 정보기술, 첨단 서비스 산업과 창조/문화 산업과 같은 소비부문에서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주로 열악하고 저임금, 미숙련 직업이 대부분이었고, 고숙련 고소득 일자리는 런던과 남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웨스트미들랜즈(West Midlands) 롱브릿지(Longbridge)에 위치한 MG 로버 공장의 폐쇄는 6,300개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의 정치적 환경과 장기적 경제 전략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웨스트미들랜즈는 1970년대부터 경기침체와 제조업 위기로 실업률이 높았고 지역개발국은 지역 경제 구성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부문의 여러 활동들로 이동시키려 노력했다. 이러한 다양화 전략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실업률이 1999년 5.0%에서 2004년 3.7%로 감소할 수 있었다. MG 로버 공장폐쇄는 바로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서 2005년에 일어났다. 공장이 폐쇄될 것이라는 위기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자동차 산업을 넘어 다양화시키려는 노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MG 로버 공장폐쇄는 상당한 경제 성장기, 경제적 다양화 전략이 추진되던 시기에 발생하였던 것이다. 지역 경제의 상대적 활황 국면에서 산업 다양화를 위한 장기적 전략의 성공과 더불어 실직 노동자와 배우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훈련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실업 후 1년 동안 재훈련 참가율은 29%로 저조했지만, 3년 후에는 60%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2/3가 재훈

련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MG 로버 공장폐쇄 3년 후 90%의 실직 노동자들이 상근직 일자리에 재고용될 수 있었다.

이렇듯 성공적인 재고용 결과에도 불구하고, MG 로버에서 실직한 노동자 중 3년 후 구직에 성공한 노동자의 60%는 MG 로버 때와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동시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급여는 MG 로버와 비교하여 상당 수준 감소하여 3년 후 연간 소득의 차이가 £5,640나 되었고, 직군에 따라 소득의 변화는 양극화되었다. 관리직은 MG 로버 폐쇄 3년 후에도 소득에 변화가 없었고 영국 평균과 비교해도 소득분위 상위에 위치했던 반면 대부분의 노동자는 소득이 감소했는데, 그중 미숙련 노동자의 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웨스트미들랜즈 MG 로버 자동차 공장폐쇄의 경험은 지역 차원에서 잠재적인 경제적 충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고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교훈을 준다. 이처럼 우리는 사업장 폐쇄를 비연속적인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이고 경로 의존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장 폐쇄는 ‘폐쇄’ 이전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그 영향은 ‘폐쇄’ 이후에도 지속된다.

나. 실직 노동자의 건강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의 논문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각 연구들에서 관심을 두는 건강 영역과 건강의 측정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논문들에서 다룬 건강 영역은 ① 신체건강, ② 정신건강, ③ 건강행태, ④ 총사망, ⑤ 자가평가건강수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신체건강, 정신건강, 건강행태는 각각 ① 입원, ② 의료비용, ③ 사망 지표로 측정되었다. 그 외에 장애연금 수급이 건강의 악화를 나타내는 대리 지표로 사용되기도 했다.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의 건강 영향은 개별 연구들이 관심을 두는 건강 영역과 측정 지표에 따라 결과가 상이했고, 동일한 건강 영역을 동일한 지표로 측정한 연구들 사이에도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국외 연구의 배경과 사회적 맥락에 중점을 두고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 상병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 연구들은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이 신체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증명하고자 했지만, ‘입원’ 지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업장 폐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신체건강보다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베르센 등(1989)¹⁵⁾은 덴마크 엘시노어(Elsinore) 조선소가 1983년 폐쇄하면서 실직한 노동자 887명과 계속 가동 중인 단네브로그(Dannebrog) 조선소 노동자의 입원율을 폐쇄 5년 전부터 폐쇄 3년 후에 이르는 8년 동안(1979-86년)에 걸쳐 비교하였다. 저자의 가설과 달리 전체 입원율에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엘시노어 조선소 실직 노동자들의 전체 입원 상대위험도는 오히려 감소했는데, 가장 주된 원인은 실직 후 사고로 인한 입원이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위험한(dangerous)’ 일자리이기 때문에 조선소 폐쇄로 인한 실직이 사고의 위험을 낮춤으로써 건강을 오히려 개선시켰다. 또한 소화계 질환 입원율도 안정 고용된 단네브로그 조선소 노동자에서 오히려 증가하였고, 엘시노어 조선소 실직 노동자의 심혈관 질환 입원 상대위험도는 조선소 폐쇄 전보다 증가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우닝 등(2006)¹⁶⁾도 1981-1999년 덴마크 남성 인구 10% 표본을 이용하여 직원 수가 30% 이상 감소한 사업체에서 정리해고된 실직 노동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순환계, 소화기 계통 질환 입원율을 분석하였다. 건강,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개인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성향점수매칭 기법의 준 실험적 설계를 이용한 이 연구에서도 정리해고는 스트레스로 인한 입원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두 연구에서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사회보장 수준을 갖춘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덴마크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덴마크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업수당의 임금 대체율이 매우 높고 수급 기간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길기 때문에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낮을 수 있다. 이후 브라우닝과 하이네센(2012)¹⁷⁾은 연구 기간을 확장하여(1980-2006) 덴마크에서 노동시장 귀속성(attachment)이 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규모축소가 아닌) 사업장 폐쇄가 원인별 입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순환계 질환으로 인한 입원에서는 안정 고용 노동자와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반면에 음주관련질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의 위험은 실직한 당해 연도에 각각 76%, 63% 높았고, 누적 위험비는 20년이 지나서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입원 지표가 실직자의 신체건강 악화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다. 의료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 국가에서 실직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기피할 위험이 높다. 하나의 예로 뉴질랜드에서 수행된 한 연구를 살펴보자. 키피 등(2002)¹⁸⁾은 1912년 뉴질랜드 시골 지역에 세워진 와카투(Whakatu) 고기가공 공장이 1986년 10월에 예상치 못하게 문을 닫게 되면서 발생한 비자발적 실직의 건강 문제를 탐구하였다. 뉴질랜드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른바 ‘혁신’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시장중심 경제정책을 강하게 도입했다. 그 결과 1985년 이후 경제·사회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이 변하게 되고 고용률이 역전되었다. 실업률은 1986년 12월 3.6%에서 1994년 12월 6.8%로 증가하였고 여러 산업부문에서 정리해고가 단행되었다. 고기가공 산업도 그 중 하나였다. 와카투의 실직자 2,160명의 건강을 유사한 지역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 토노아나(Tonoana) 공장의 노동자들과 비교하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설계하였다. 토노아나 공장이 1994년 8월에 가동을 중단하기까지 8년간 두 공장 노동자의 사망, 정신질환/자해/심장질환/뇌혈관질환/암/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와카투 실직 노동자들이 자해로 입원할 상대위험만 유일하게 두 배 이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실직의 건강영향이 신체적으로 발현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8년의 짧은 기간에서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호흡기 질환, 암 등 신체건강의 변화를 포착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는 입원과 같은 의료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에서 치료가 지연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원’ 지표는 실직자의 건강 악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 1983-1999년 고용주-피고용인 연계자료를 이용한 연구¹⁹⁾에서도 1987/88년 사업장 폐쇄로 실직한 남녀 모두 실직 10년 후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입원에서는 비실업 노동자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건강의 경우는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에서는 실업군에서 음주관련질환, 교통사고, 자해로 인한 입원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음주관련질환(정신과 입원과 비 정신과 입원, 예컨대 간경화증을 모두 포함) 입원의 위험만 높게 나타났다.

● 사망

사업장 폐쇄와 사망 위험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도 일관되지 않았다.

우선 핀란드의 대표성 있는 고용주-고용인 연계 표본자료를 이용한 연구²⁰⁾는 1989년과 1994년을 기준으로 고용되어 일 하고 있는 노동자 코호트를 구축하고 이후 8년간 사망률을

추적하였다. 연구진은 사업장 규모감축 수준에 따라 실업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구조조정이 심하게 이루어진 사업장에서는 실직과 총사망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사업장이 폐쇄되었거나 심한 구조조정을 겪은 사업장(50~100%)의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사업장(<10%)의 노동자들에 비해 사망률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1989년 코호트(실업률이 낮은 시기)와 1994년 코호트(실업률이 높은 시기) 모두에서 결과는 동일했다. 미국 ‘건강과 은퇴 조사(Health and Retirement Study)’ 1994-2002년 자료를 이용한 연구²¹⁾에서도 역인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업’의 건강영향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업은 자가평가건강수준,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 주관적 기대수명, 우울감의 변화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연구진은 실직이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후에는 연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장 폐쇄로 실직한 노동자의 사망률을 추적하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앞선 연구들과 달리, 이들 연구 결과는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이 실직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을 보여준다. 앞서 소개한 덴마크의 연구¹⁷⁾에서 사업장 폐쇄로 인해 실직한 노동자의 순환계 입원 위험은 비(非) 실직 노동자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총 사망과 순환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실직 후 20년까지도 대조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었다. 음주관련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또한 실직 직후 1년 동안에 대조군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년이 지난 후에도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자살 위험은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 직후 대조군에 비해 가장 크게 높아지고 4년 후까지 지속되는데, 이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사망의 위험도 실직 후 2~15년까지 지속되었다. 이처럼 사업장 폐쇄가 실직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순환계 질환, 음주관련질환, 자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에서보다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도 1980-2006년 실험보험 기록과 사망기록을 이용하여 1980-1985년에 대량해고로 실직한 오랜 경력을 지닌 남성 노동자의 총 사망 위험을 20년간 장기 추적하였다.²²⁾ 그 결과 대량해고로 인해 실직한 노동자의 사망 위험은 비 실직 대조군에 비해 실직 1년 후 출생 코호트에 따라 50~100% 증가하였고, 20년 후에도 이들의 사망위험은 10~15%로 크게 나타났다.

스웨덴에서도 1983-1999년 고용주-피고용인 연계자료를 활용하여 1987/88년 사업장 폐쇄로 실업한 노동자들의 총 사망과 원인별 사망을 10년간 장기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²³⁾ 마찬가지로 남성 실직 노동자의 전체 사망률은 실직 후 4년 동안 비 실직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4년이 지난 후 사망 위험은 오히려 역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이 스트레스를 높이고 이후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역경들이 장기적으로 사망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사망 위험은 치명적인 자살이나 음주관련 질환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실직으로 인한 초과 사망 위험이 매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 연구에서 여성 실직 노동자의 총 사망률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실직이 여성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연령을 구분해서 분석하면, 여성의 경우 25-44세 실직 노동자에서만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초기 4년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24-35세는 실직 후 5-8년이 지나서, 35-44세는 9-12년 이후에 비-실직 노동자와의 사망률과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젊은 세대의 여성들에서 노동시장참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이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부정적인 건강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 건강영향의 불평등

사업장 폐쇄의 건강영향도 실직 노동자의 이후 노동시장경험과 마찬가지로 연령, 교육수준, 숙련도, 지역사회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브라우닝과 하이네센(2012)¹⁷⁾에서 실직의 사망 위험은 실직 후 4년까지는 40-49세 중년층에서 가장 높아졌고, 장기적으로는 20-39세의 젊은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실업이 단·중기적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노동자들과 5년 미만 경력의 노동자들 모두 실직 후 사망 위험이 높아졌고, 경력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실업률이 높은 지역(>9%)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은 실업률이 낮은 지역의 노동자들보다 사망 위험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장 폐쇄 이후 재고용을 결정짓는 개인의 교육수준과 지역의 노동수요와 고용 기회가 사업장 폐쇄 후 실직 노동자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앞서 소개한 스웨덴 연구²³⁾의 결과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남성의 총 사망 위험은 실직 후 초기 4년에서만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군을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 초년생인 25-34세와 가장 높은 연령인 55-64세 실직 노동자의 사망률이 실직 후 4년까지 유의하게 높았고 이들의 죽음은 자살과 음주 관련 질환에 기인하고 있었다. 반면 생산가능연령의 적령기에 있는 35-54세 실직 노동자는 실직 후 사망 위험이 높아지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 또한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이 모두의 건강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충분한 경력을 쌓지 못한 청년들과 은퇴하기에는 젊고 재취업하기에는 늦은 50대 후반의 노동자들은 사업장 폐쇄로 고위험 음주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행동과 자살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스웨덴에서 1983-1999년 고용주-피고용인 연계자료를 이용한 다른 연구²⁴⁾에서는 정신과 입원만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는데, 여성 실직자에서만 전체 정신과 입원, 알코올 및 약물남용 입원, 정동장애 입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선행 연구 결과와 달리 남성 실직자의 정신과 입원이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남성 노동자에서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라기보다 오히려 동일한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도 실직 남성 노동자들이 의학적 도움을 덜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비자발적 실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한편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은 모든 노동자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독일의 2000-2014년 사회경제패널 자료를 이용한 연구²⁵⁾에 따르면,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은 실직 전에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분포의 하위에 속한 사람들의 건강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장 폐쇄는 해당 사업체에 일하는 모두를 실업 상태에 빠지게 하지만, 실업의 부정적 영향은 기존에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이 나쁜 사람들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또한 국가에 따라 사업장 폐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상이하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50-64세에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연구가 있다.²⁶⁾ CES-D(Center for enter for Epider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와 유럽우울척도(Euro-Depression Scale)를 각각 이용한 결과,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은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지만, 증가 정도는 미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미국에서는 실직 이전에 가난한 사람일수록 실직 후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실직과 우울의 관계가 기존 자산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저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에서는 50-61세에 장기 실업에 빠진 실직자의 59%만이 실업수당을 수급할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유럽에서는 거의 모든 실직자들이 실업보험, 실업부조 또는 주거 보조비 형태의 보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실업 보조금의 소득 대체율 또한 유럽이 미국보다 높고 수급 기간도 훨씬 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이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3.2. 사업장 폐쇄와 실직 노동자 가족의 삶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 구성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주로 북미와 유럽국가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이 배우자의 건강, 부부의 이혼과 출산, 자녀의 교육과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일관된 결과를 끌어내기에는 이와 같은 주제와 관련해서 아직 국내외 연구 기반이 부족하지만, 국내에 충분한 함의를 제시해 준다.

가. 배우자

● 배우자의 건강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은 실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2002-2010년 사회경제패널 자료를 이용한 연구²⁾는 남편이 실업한 커플 70쌍과 아내가 실업한 커플 39쌍으로 구성된 총 109쌍의 실험군과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커플 14,000쌍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종합점수(Mental Component Summary Scale)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업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크기는 대등했다. 실업 당사자가 남편인 경우와 부인인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남편의 실업이 부인의 실업보다 본인과 배우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다소 크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사업장 폐쇄의 건강영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배우자의 건강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 비용을 과소 추정해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업장 폐쇄로 인해 실직한 경우 개별 해고로 인한 실직보다 당사자와 배우자의 정신건강은 더욱 크게 악화되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사업장이 폐쇄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자격으로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폐쇄할 때까지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어쩌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가장 낮거나 다른 사업체로 쉽게 옮겨 가 일하기 힘든 유연성이 낮은 노동자일지도 모른다.

● 부부 관계

우선, 미국의 소득 패널연구(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이용한 연구²⁷⁾에서는 사업장 폐쇄에 의한 실직, 개별 해고, 장애가 이혼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사업장 폐쇄에 의한 실직과 개별 해고, 장애는 모두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개별 해고의 경우에만 이혼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전적 손실 보다는 배우자의 비경제적 적합성이 문제였다. 이는 장애와 사업장 폐쇄는 ‘불운’이지만, 해직은 배우자로서 적합한 경제적 능력과 인성, 훈육,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한편, 노르웨이²⁸⁾와 스웨덴²⁹⁾에서는 고용주-피고용인 연계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년도 배우자의 사업장 폐쇄가 이혼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두 연구 모두 남편이 사업장 폐쇄로 실직한 경우에만 이혼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실직은 이혼 가능성과 무관하거나 이혼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노르웨이 연구에서 사업장 폐쇄로 실직한 후 이혼한 커플과 그렇지 않은 커플 사이의 소득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장 폐쇄가 이혼 위험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고, 남편에게 기대되는 전통적인 생계부양자 역할이 실패함에 따라 발생함을 의미한다.

● 출산

하지만 ‘출산’을 놓고 보면 여성이 경험하는 ‘사업장 폐쇄’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오스트리아의 18~35세 화이트칼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³⁰⁾에서, 사업장 폐쇄를 경험한 여성의 출산율은 실업 발생이나 실업 기간과 무관하게 6년 후까지 실직하지 않았던 대조군 여성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정리해고 전 임금이 높고 임금 성장률이 높았던 ‘경력지향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두드러졌다. 즉, 실업으로 인한 단기적 임금 손실보다는 경력과 고용에 대한 고려가 출산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의미한다. 핀란드 연구³¹⁾에서도 여성의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은 출산율을 저하시켰고, 특히 고학력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남편의 실직이 부인의 실직보다 영구 소득감소 효과가 더 컸음에도 출산율 저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부인이 노동시장에 밀착되어 있고 영구 소득 손실이 가장 큰 저학력의 장기근속 남성에서만 출산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일 연구에서 여성 임금의 상승은 출산을 지연시키고 전체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반면, 남성 임금의 상승은 출산율에 작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은 여성의 실직이 출산

을 저하시키는 것은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경력 단절 때문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나. 자녀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은 이혼과 출산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노르웨이에서는 아버지가 사업장 폐쇄로 실직하면 자녀의 졸업년도 평균 점수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둔 또래에 비해 6%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영향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져 졸업 성적이 11%까지 낮아졌다.³²⁾ 이혼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실직은 오히려 자녀의 성적이 개선되는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캐나다에서도 자녀가 16~18세인 3년 간 주요 생계부양자인 부모가 실직할 경우 고등교육기관과 대학 등록률이 감소하고, 이는 특히 부모가 고졸 이하의 저학력일 때 더욱 두드러졌다.³³⁾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직은 자녀에게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에서는 세대 간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가족 자료를 이용해서 1980-82년 아버지의 직장폐쇄를 경험한 아들과 직장폐쇄 없이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던 아버지의 아들의 5년 간 수입 격차, 실업 여부와 사회보조금 수급 여부를 비교하였다.³⁴⁾ 그 결과 아버지가 실직을 경험한 아들의 5년 평균 수입이 매년 9% 낮고, 고용보험과 사회보조금 수급율이 각각 5%, 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자면, 기존 문헌에서는 결혼/이혼이나 출산 결정에 대한 정리해고의 영향은 소득감소보다 배우자 적합성, 경력 단절 측면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업수당/고용보험 제도가 불충분하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보호 장치가 미흡한 한국 사회에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데다 여성의 절대 다수가 불안정고용 상태인 걸 고려하면, 일시적 정리해고나 실직의 의미를 항구적 불안정성과 분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조주은의 ‘현대가족 이야기’³⁵⁾에서 전형적인 정규직 남성 부양자 모델의 편재성을 관찰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수가 압도적이고 삶의 파편화 경향도 상당하다 (가족과 분리거주, 일감 따라 지역 옮겨 다니기, 불안정 맞벌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 위기로 실직을 겪는 가정의 이혼/별거, 가정폭력 등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심각할 것으로 짐작된다.

3.3. 지역 경제위기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지금까지는 사업장 폐쇄가 실직 노동자와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개인적인 영향을 검토했다. 그렇다면 지역 경제를 주도하던 지배적 산업의 침체는 지역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배적 산업 침체는 지역의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 주거와 도시 재개발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 변화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힘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다. 따라서 한 도시의 번영과 침체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선행 연구들에서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시이다. 1940년대 초반 미국 산업화의 정점에 있었던 디트로이트가 오늘날 황량한 풍경과 중단 없는 빈곤의 모습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역사 사회학자인 토마스 서그루(2014)³⁶⁾는 주요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자동차 산업의 사령부였던 디트로이트의 번영과 위기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도시들의 전환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디트로이트와 같은 도시의 전환이 시장의 힘에 의한 ‘자연적’이며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고, 세 가지 힘 - ① 일자리 실종, ② 흑인에 대한 일자리 차별, ③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분포를 야기한 인종 간 주거 분리 - 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 전후 디트로이트 경제의 번영과 위기

1940년대 초반, 디트로이트는 미국 산업화의 정점에 있었다. 2차 세계 대전 동안 중화학 산업에 대한 수요가 치솟을 당시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들이 군사 장비, 비행기, 탱크 등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디트로이트는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불렸다. 1940~1947년 동안 디트로이트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40% 증가하였고, 1940~1943년 동안 실업자 숫자는 13만 5천 명에서 4천명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 남부에서 경제적 기회를 얻고 가혹한 차별로부터 탈출하겠다는 희망을 가진 수많은 흑인 노동자가 디트로이트로 이주해왔다. 2차 대전 당시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없애라는 시민단체들의 압력이 이어졌다. 군수산업에서 비차별을 강제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 8802조와 대통령 직속 공정고용위원회가 설립되면서 흑인의 취업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짧은 번영기가 지나고 1950년대 들어서 거의 50만 명의 인구가 줄었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주민의 약 1/3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는 도시로 전락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산업기술의 발전, 지역과 국제 차원에서 경쟁의 가속화, 저임금 지역에서 산업의 팽창은 미국산업도시에서 탈산업화를 가속시켰다. 디트로이트, 시카고, 뉴욕,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트레톤, 보스턴, 버팔로, 세인트루이스 등의 도시에서 1950년대 초 수십 만 명의 제조업 종사자들이 직장을 잃었다. 전쟁 당시 중요한 무기공의 생산지로 명성을 떨쳤던 디트로이트는 전쟁 이후 군수산업의 급속한 쇠퇴와 함께 관련 종사자들의 실업을 경험하게 되었다.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는 특히 저소득, 저학력의 숙련도가 낮은 흑인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기회의 사다리를 제거하였다.

● 계속된 디트로이트 빈곤의 기원 - 주거와 일터에서의 차별

산업과 노동자들은 떠나고, 연방정부가 도시 재정지출을 감축한 상황에서 도시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가로막히게 되었다. 토마스 서그루는 1970 - 80년대 디트로이트의 계속된 빈곤은 2차 대전 발발 무렵 도시 경제의 전환, 그리고 전후 시기 동안 지속된 주거와 일터에서의 차별에 그 기원을 둔 인종 정치/문화의 유산이라고 설명한다.

우선, 전후 번영기 흑인 인구의 엄청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건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엄격한 인종 간 주거 분리가 지속되었다. 수만 명의 백인들은 도심 외곽을 둘러싼 교외에 거주하는 반면, 흑인들은 쇠퇴하는 과밀한 도심 지역에 몰아넣었다. 전후 고속도로와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는 흑인 주거지를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건설되었는데, 이는 ‘슬럼을 밀어 버리는 간편한 수단’이 되었다. 도시에 중산층 거주 단지를 만들어 도시 경제를 재부흥시키려는 계획은 황폐한 흑인 주거지를 쓸어버렸고, 가장 가난한 가구들은 외곽 고립지역으로 쫓겨났다. 동네의 인종/민족/경제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분쟁을 최소화 시키려는 연방 정부와 지역 은행가, 건물주, 부동산 업자, 개발업자 모두는 흑인을 배제하는 제한적 계약을 묵인해왔다. 이후 부동산 중개인들은 블록버스터를 통해 자신의 집을 갖길 열망하는 흑인들의 기대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흑인이 침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백인 주택 소유자들의 뿌리박힌 공포를 부채질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흑인에 대한 고용 차별로 대부분의 흑인들은 서비스직이나 미숙련 직업과 같은 이차 영역 직종에 종사하였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흑인들을 비생산적이고 신뢰할 수 없으며 결근이 잦다는 등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고, 1955년 공정고용법규가 시행되기 전까지 구인

광고에서 선호 인종을 명기하였다. 흑인들은 시민들과 접촉이 잦은 백화점과 쇼핑몰 등 눈에 잘 띄는 직업에서 배제되었고 전후 호황을 맞은 건설업에서도 비숙련직으로 배치되었고 저임금을 감수해야만 했다. 1939년 당선된 제프리스(Jeffries)는 흑인들의 정치적 충성심을 얻기 위하여 공공부문 흑인 고용률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관리직은 소수이고 대부분 건물 관리인, 토지 관리인, 환경 미화원 등 직업 계층 사다리의 가장 하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흑인 경제활동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세율의 감소와 작은 정부로의 움직임에 따라 공공 분야 일자리 기회조차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1945-50년대 디트로이트의 청년 흑인 남성은 차별에 의해 기회가 매우 제한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공장 고용에 대한 현실적 기대를 할 수 있었던 반면, 그 이후 세대는 매우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 30년 동안 1960년대 중후반의 일시적 자동차 산업 고용 붐을 제외하고는 안정적 고용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범죄활동에 빠져들게 되었고, 생존을 위한 일탈적 직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 오늘날 디트로이트

전후 디트로이트의 경제적, 사회적 역사의 유산은 지난 30년 동안 도시에 무거운 짐을 남겼다. 아무런 정부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제조업자들은 도시를 떠났고, 안정된 블루칼라 일자리는 점차 희소해졌다. 공직자들은 새로운 산업을 끌어들이려 노력했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했고, 그나마 토지 제공을 통해 유치한 공장들도 다른 지역 노동자를 이주시킨 것이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자리 공백은 서비스 부문이 매우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 이후 파트타임, 기간제 일자리만 가장 크게 늘어났다.

최근 디트로이트 같은 다수의 러스트 벨트 도시들이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예술과 문화, 연예, 관광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거의 모든 도시들이 다양하고 젊은 ‘창조적 계급 creative class’의 팽창이 부흥의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다. 토마스 서그루는 이러한 도시 재생에 관한 낙관주의가 다수의 도시 주민들, 특히 유색인종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덮어버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도심 재생과 동네 젠트리피케이션은 장기적 빈곤을 해결하지 못했고, 그 혜택 또한 도시 노동계급과 소수인종에 대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 사회의 인종 문제는 한국 사회와는 동떨어진 현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흑인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4. 결론

우리는 문헌 종합을 통해 지역 경제를 주도하던 지배적 산업의 침체가 실직 노동자와 가족 구성원,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각국의 연구들은 각 사회의 구체적인 경험과 제도적 맥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폐쇄가 특정한 결과(Outcome)로 이어지게 하는 기전(Mechanism)과 그 기전이 작동하는 맥락(Context)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 소개한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만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도시들의 경험은 사업장 폐쇄가 비연속적인 일시적 사건이기보다 오히려 장기적이고 경로 의존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사업장 폐쇄는 ‘폐쇄’ 이전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그 영향은 ‘폐쇄’ 이후에도 지속된다. 따라서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중앙/지역정부 차원에서 잠재적인 경제적 충격에 미리 대비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산업을 다양화하고 침체하는 산업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에게 재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면, 노동자와 가족, 지역사회는 경제위기에서 더욱 빨리 회복할 수 있다.

또한 디트로이트 도시 전환의 역사는 오늘날 황량한 풍경과 중단 없는 빈곤의 모습이 변영의 시기부터 지속된 일자리와 주거에서의 인종 차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한국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조선 산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기능직 하청노동자는 직영의 3배가 넘는다. 이들은 원청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높은 노동 강도와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 놓여있으며 산업재해 발생률도 매우 높다. 사내 하청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작업하는 ‘물량팀’은 대부분 근로계약서 없이 일에 투입되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조차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 조선 산업의 경기침체의 지역사회 영향을 고려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형적인 이중노동시장이라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 산업 구조조정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이지만,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생계비 지원, 재취업 훈련, 실업급여 연장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관계를 증명할 문서 한 장 없는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항구적 고용 불안에 적응하며 살아온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의 조선 산업에서 경제위기의 영향이 서구 여러 도시들과 유사하게 나올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지역 경제위기에 대한 논의가 기존의 성장담론



에서 벗어나 노동과 삶에 큰 타격을 입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배규식, 이정희, 정홍준, 박종식, 심상완. (2016).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08.
- 2) Marcus, J. (2013).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spouses—Evidence from plant closures in Germany. *Journal of Health Economics*, 32(3), 546-558.
- 3) Pawson, R., Greenhalgh, T., Harvey, G., & Walshe, K. (2004). *Realist synthesis: an introduction*. Manchester: ESRC Research Methods Programme, University of Manchester.
- 4) Tomaney, J., et al. (1999). "Plant closure and the local economy: The case of Swan Hunter on Tyneside." *Regional Studies* 33(5): 401-411.
- 5) Couch, K. A. (2001). "Earnings losses and unemployment of displaced workers in Germany."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 54(3): 559-572
- 6) Couch, K. A., & Placzek, D. W. (2010). Earnings losses of displaced workers revisited.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0(1), 572-589.
- 7) Couch, K. A., Jolly, N. A., & Placzek, D. W. (2009). Earnings losses of older displaced workers: A detailed analysis with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on Aging*, 31(1), 17-40.
- 8) Shuttleworth, I., Tyler, P., & McKinstry, D. (2005). Redundancy, readjustment, and employability: what can we learn from the 2000 Harland & Wolff redundancy?. *Environment and Planning A*, 37(9), 1651-1668.
- 9) Eriksson, R., Lindgren, U., & Malmberg, G. (2008). Agglomeration mobility: effects of localisation, urbanisation, and scale on job chang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10), 2419-2434.
- 10) Eriksson, R. H., Henning, M., & Otto, A. (2016). Industrial and geographical mobility of workers during industry decline: The Swedish and German shipbuilding industries 1970-2000. *Geoforum*, 75, 87-98.
- 11) Kletzer, L. G., & Fairlie, R. W. (2003). The long-term costs of job displacement for young adult workers. *ILR Review*, 56(4), 682-698.
- 12) Hardoy, I., & Schøne, P. (2014). Does the impact of plant closure on labour market attachment differ between immigrants and native workers across the business cycle?. *Empirical Economics*, 46(1), 229-252.

- 13) Eliason, M., & Storrie, D. (2006). Lasting or latent scars? Swedish evidence on the long-term effects of job displace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24(4), 831-856.
- 14) Bailey, D., Chapain, C., & de Ruyter, A. (2012). Employment outcomes and plant closure in a post-industrial city: an analysis of the labour market status of MG Rover workers three years on. *Urban Studies*, 49(7), 1595-1612.
- 15) Iversen, L., Sabroe, S., & Damsgaard, M. T. (1989). Hospital admissions before and after shipyard closure. *BMJ*, 299(6707), 1073-1076.
- 16) Browning, M., Moller Dano, A., & Heinesen, E. (2006). Job displacement and stress-related health outcomes. *Health economics*, 15(10), 1061-1075.
- 17) Browning, M., & Heinesen, E. (2012). Effect of job loss due to plant closure on mortality and hospitalizatio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31(4), 599-616.
- 18) Keefe, V., Reid, P., Ormsby, C., Robson, B., Purdie, G., Baxter, J., & Incorporated, N. K. I. (2002). Serious health events following involuntary job loss in New Zealand meat processing wor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1(6), 1155-1161.
- 19) Eliason, M., & Storrie, D. (2009). Job loss is bad for your health—Swedish evidence on cause-specific hospitalization following involuntary job loss. *Social science & medicine*, 68(8), 1396-1406.
- 20) Martikainen, P., Mäki, N., & Jäntti, M. (2007).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mortality following workplace downsizing and workplace closure: a register-based follow-up study of Finnish men and women during economic boom and recession.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65(9), 1070-1075.
- 21) Salm, M. (2009). Does job loss cause ill health?. *Health Economics*, 18(9), 1075-1089.
- 22) Sullivan, D., & Von Wachter, T. (2009). Job displacement and mortality: An analysis using administrative data.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4(3), 1265-1306.
- 23) Eliason, M., & Storrie, D. (2009). Does job loss shorten lif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4(2), 277-302.
- 24) Eliason, M., & Storrie, D. (2010). Inpatient psychiatric hospitalization following involuntary job los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39(2), 32-55.
- 25) Schiele, V., & Schmitz, H. (2016). Quantile treatment effects of job loss on health. *Journal of health economics*, 49, 59-69.

- 26) Riumallo-Herl, C., Basu, S., Stuckler, D., Courtin, E., & Avendano, M. (2014). Job loss, wealth and depression during the Great Recession in the USA and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43(5), 1508-1517.
- 27) Charles, K. K., & Stephens, Jr, M. (2004). Job displacement, disability, and divorce. *Journal of Labor Economics*, 22(2), 489-522.
- 28) Rege, M., Telle, K., & Votruba, M. (2007). Plant closure and marital dissolution.
- 29) Eliason, M. (2012). Lost jobs, broken marriag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5(4), 1365-1397.
- 30) Del Bono, E., Weber, A., & Winter-Ebmer, R. (2015). Fertility and economic instability: the role of unemployment and job displacement.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8(2), 463-478.
- 31) Huttunen, K., & Kellokumpu, J. (2016). The effect of job displacement on couples' fertility decision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2), 403-442.
- 32) Rege, M., Telle, K., & Votruba, M. (2011). Parental job los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8(4), 1462-1489.
- 33) Coelli, M. B. (2011). Parental job loss and the education enrollment of youth. *Labour Economics*, 18(1), 25-35.
- 34) Oreopoulos, P., Page, M., & Stevens, A. H. (2008). The intergenerational effects of worker displace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26(3), 455-483.
- 35) 조주은. (2004). 현대 가족 이야기. 이가서.
- 36) Sugrue, T. J. (2014). *The origins of the urban crisis: Race and inequality in postwar Detroit*. Princeton University Press.

<표 1> 사업장 폐쇄가 실직 노동자의 노동시장경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가	자료원	연구설계	연구대상	폭로변수	결과변수	연구결과
Couch (2001)	독일	독일 사회경제 패널, 1988-1996	종단	1888-96년 25-55세 ①실직 419, 고용 7997 ②실직 374, 고용 5442 ③실직 280, 고용 4243	1991-1996년 사이 사업장 폐쇄	연간 소득/ 연간 실직기간 (월)	① 실직한 해 연간 소득이 사업장 폐쇄 전보다 13.5% 감소하고, 사업장 폐쇄 2년 후 연간 소득은 6.5% 감소 ② 실직한 해 연간 6~10일의 실직기간 경험하고, 사업장 폐쇄 2년 후 연간 실직기간은 최대 4일
Kletzer & Fairlie (2003)	미국	청년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84-93	종단	1979년에 12-22세인 청년 12,686명	사업장 폐쇄 또는 일시 해고 다음 해 재고용되지 않은 경우	연간 소득/ 시간당 급여	① 실직 3년 후 연간소득 12% 손실 (실직하지 않은 대조군 대비) ② 실직 3년 후 시간당 급여 남녀 각각 13.4%, 7.5% 손실
Eliason & Storrie (2006)	스웨덴	고용주-피고용인 연계자료, 1983-1999	종단	1987년 실직 4,397명 고용 115,696명	1986.11.1~87.10.31. 사업장 폐쇄	고용여부/ 실업보험 수급여부/ 연간 소득	① 사업장 폐쇄가 발생한 1987년 실직자와 비-실직자의 그해 실업 위험의 차이가 13% 포인트로 증가하였고, 고용률(1987년 11월)은 실직자가 7% 포인트 낮고, 연간 소득 격차는 US\$1,088. 실직 2년 후인 1990년에 사업체 폐쇄로 인한 실직자와 대조군 사이의 실업률과 고용률 격차가 감소하여 각각 2%, 3% 포인트 반면, 연간 소득 격차는 더디게 회복하여 2년 후에도 US\$723. ② 1990년대 초반 스웨덴의 경기침체의 정점인 1993년, 실직자와 비실직자의 고용, 실업, 연간소득의 격차의 감소 경향은 역전됨. 연간 소득 격차는 1987년보다 더 커졌고 실업과 고용의 격차는 각각 6.3, 5.1% 포인트로 증가. 1993년 이후 스웨덴 경기 침체는 지속되었으나 격차는 감소. 하지만 1999년에도 여전히 9년 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함. ③ 실업 직후 실업과 고용의 부정적 영향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반면, 연간 소득은 31-40세에서 가장 적게 감소하고 21-30세, 41-50세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음. 하지만 사업장 폐쇄 12년 후에도 모든 연령대의 실직자들은 연간 소득의 감소와 높은 실업률, 낮은 고용률 경험

연구	국가	자료원	연구설계	연구대상	폭로변수	결과변수	연구결과
Couch, Jolly & Placzek (2009)	미국	Connecticut의 실업보험 임금기록 + 분기별 고용과 임금 센서스 + 교통국 면허기록, 1993-2004	종단	1998년 고용 58,529명 대량해고 실직 14,080명 그 외 실직 18,645명	1999-2004년 대량해고로 인한 실직	소득	① 대량해고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해고 직후 분기 소득 손실 규모가 크지만 (40세는 -\$2,743 (20% 손실) vs. 64세는 -\$7,033 (58% 손실)), 젊은 연령일수록 소득 손실을 빠르게 회복 (40세는 해고 6년 후 분기 소득 손실 14% vs. 60세는 53%) ② 대량해고 이후 다른 산업부문에 재고용되면 동일 산업부문에 재고용되는 것에 비해 해고 6년 이후 분기 소득 손실이 큼. 특히 제조업에서 해고되어 비제조업에 재고용될 경우 소득 손실 규모가 더욱 큼.
Couch (2010)	미국	Connecticut의 실업보험 임금기록 + 분기별 고용과 임금 센서스 + 교통국 면허기록, 1993-2004	종단	1998년 고용 60,670명 대량해고 실직 15,855명 그 외 실직 34,456명	1999-2004년 대량해고로 인한 실직	소득	① 대량해고 직후 분기 소득 32% (고정효과모형), 33% (시계열 추정) 감소. ② 대량해고 6년 후 분기 소득 평균 9% (고정효과모형), 7%(시계열 추정) 감소로 상당히 회복. ③ 대량해고 외 실직자의 경우 해고 6년 후 소득감소 완전 회복
Hijzen 등(2010)	영국	New Earnings Survey + Inter-Departmental Business Register + Annual Business Inquiry	종단	1995-2002년 ①실직 4,841, 고용 341,570 ②실직 2,144, 고용 184,084 ③실직 2,085, 고용 176,328 ④실직 1,311. 고용 169,560	1995-2002년 공장폐쇄/, 대량해고 실직	소득	① 사업장 폐쇄 후 첫 5년간 소득은 18-35% 감소, 정리해고는 14-25% 감소 ② 고령, 남성, 제조업 종사자, 숙련직, 장기근속자에서 소득 감소가 크게 발생
Hardoy & Schone (2014)	노르웨이	고용주-피고용인 연계자료, 1995-2005	종단	① 경제호황기 코호트: 1996년 25-58 전일제 노동자 (1995-2000) ② 경제불황기 코호트: 2001년 25-58 전일제 노동자 (2000-2005)	1996-97 또는 2001-02 공장폐쇄로 인한 실직	고용여부/ 전일제/ 근무일수	① 공장폐쇄는 원주민보다 이주민들에게, 특히 경제불황기에 고용과 근무일수에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미침. ② 경제호황기와 불황기 코호트 모두에서 공장폐쇄 후 첫 1년에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 가장 큰 실업률과 연간 근무일수의 감소를 경험하는데, 경제불황기 때 더디게 회복함

연구	국가	자료원	연구설계	연구대상	폭로변수	결과변수	연구결과
Eriksson, Henning & Otto (2016)	스웨덴, 독일	(스웨덴) 고용주-피고용인 연계자료 1970-2000; (독일) 고용이력패널 1975-2000	종단	조선업 노동자	지역의 ①조선업 특화도 ②산업 다양성 ③조선업과 기술 관련성 높은 산업의 비율	조선업 고용상태/ 이직 후 임금변화	① 고령 노동자, 숙련직 노동자들은 조선산업을 떠나기 꺼려함. ② 고임금, 고령의 노동자들은 이직 후 임금이 감소하는 반면, 젊은 노동자들은 조선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직 후 임금 증가 ③ 조선업 특화도가 높은 지역의 조선업 노동자들은 조선업 침체기에도 이직하지 않음. ④ 조선업과 기술 관련성 높은 산업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다른 산업으로 이직할 가능성 높음

<표 2> 사업장 폐쇄가 실직 노동자/배우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번호	국가	자료원	연구설계	연구대상	폭로변수	결과변수	연구결과
Eliason & Storrie (2009)	스웨덴	고용주-피고용인 연계자료, 1983~1999	종단	사업장 폐쇄 실직 17,008명 vs. 고용 188,0007명	1987/88년 사업장 폐쇄 실직	심근경색/뇌졸중/음주관련질환/교통사고/자해 입원	<p>① 사업체 폐쇄로 인한 실업은 남녀 모두에서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입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남성에서 음주관련질환, 교통사고, 자해로 인한 입원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여성에서는 음주관련질환 입원의 위험만 증가시킴</p> <p>② 실업이 음주관련질환, 교통사고, 자해로 인한 상해 입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결혼한 남성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에서 결혼상태는 음주관련질환과 자해 모두에서 실업의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키는 보호효과가 나타남</p> <p>③ 대학 교육도 남녀 모두에서 실업이 음주관련질환, 교통사고, 자해로 인한 입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키는 보호효과</p>
Kuhn 등 (2009)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사회보장데이터베이스, 1998-2002	종단	사업장 폐쇄 실직 12,567명 vs. 고용 12,567명	사업장 폐쇄 실직	전체 의료비용/상병수당/병가일수/진료비/입원비/약제비	<p>① 상병수당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용, 전체 입원비용, 전체 약제 처방비용은 남녀 모두에서 공장폐쇄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p> <p>②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비용과 항정신약 처방비용은 공장폐쇄군 남성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반면, 여성에서는 차이가 없었음.</p>
Browning & Heinesen (2012)	덴마크	덴마크 행정등록자료 1980-2006	종단	사업장 폐쇄 실직 33,065명 vs. 고용 1,161,222명	사업장 폐쇄 실직	원인별 사망과 입원: 총사망/암/순환기/외인성/심근경색/뇌졸중/음주관련질환/정신질환/자살/교통사고	<p>① 공장폐쇄로 인한 실직자의 총사망, 순환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외인성 사망은 실직 후 20년까지도 대조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반면 암 사망 위험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 없음.</p> <p>② 음주관련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실직 후 4년까지 지속되는데, 실직 후 1년에 대조군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음주관련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15년이 지난 후에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실업의 장기적 영향을 보여줌.</p> <p>③ 반면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은 정신건강 관련 사망에 단기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침.</p>

번호	국가	자료원	연구설계	연구대상	폭로변수	결과변수	연구결과
							공장폐쇄군은 대조군에 비해 실직 후 4년까지 정신건강 관련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높음. ④ 교통사고 사망은 드물고, 실직 후 10년까지도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 없음 입원은 모든 질환군에서 공장폐쇄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
Eliason & Storrie (2009)	스웨덴	고용주-피고용인 연계자료, 1983~1999	종단	사업장 폐쇄 실직 12,337명 vs. 고용 146,687명	1987/88년 사업장 폐쇄 실직	총사망/원인별 사망: 암, 순환기; 외인성; 허혈성질환; 뇌혈관질환; 흡연관련질환; 음주관련질환; 자살	① 공장폐쇄로 실직한 남성 노동자에서 실직 후 초기 4년간 총사망 위험 증가, 4년 이후는 유의한 증가 없음. 여성에서는 실직 이후 4년간 그리고 4년 이후에도 총사망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음. ② 남성의 총사망 위험 증가는 자살과 음주관련질환에 기인하고, 25-34세, 55-64세 집단에서 실직 후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 ③ 여성도 25-44세에서 실직 후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 하지만 실직 직후 4년간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고, 24-35세는 실직 후 5-8년, 35-44세는 9-12년 이후에 유의하게 증가
Martikainen, Maki & Jantti (2007)	핀란드	행정등록자료	종단	①1989 코호트: 1989년 구조조정 87,317명 (1990~97 추적) ②1994 코호트: 1994년 구조조정 72,416명, (1995~02 추적)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1~12개월 실직	총 사망	① 실직과 총사망과의 연관성은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크게 감소함. ② 구조조정이 심하게 이루어진 사업장에서는 실직과 총사망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음. 공장이 폐쇄되었거나 심한 구조조정을 겪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회사의 노동자에 비해 사망률이 오히려 낮았음
Salm (2009)	미국	건강과 은퇴 연구, 1994-2002	종단	사업장 폐쇄 실직자 6,867명	사업장 폐쇄 실직/해고/자발적 퇴사/건강악화로 퇴사	자가평가건강수준/ 일상생활수행능력제한/ 주관적 기대수명/ 우울감의 변화; 의사진단 정신건강 변화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업은 자가평가건강수준, ADL제한, 주관적 수명기대, 우울등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실업과 건강수준과의 관련성이 발견되는 것은 역인과성 때문으로 생각됨.
Sullivan & von Wachter (2009)	미국	펜실베이니아 실업보험 기록+사회보장 사망 기록, 1980-06	종단	대량해고 실직 7,256명 vs. 고용 14,317명	대량해고로 인한 실직	총사망	대량해고로 인한 실직은 사망 위험을 50-100% 증가시킴. 이후 감소하지만 20년 후에도 10-15% 증가 유지. 이는 중년 노동자에서 1.0-1.5년의 기대여명 감소를 의미함.

번호	국가	자료원	연구설계	연구대상	폭로변수	결과변수	연구결과
Eliason & Storrie (2010)	스웨덴	고용주-피고용인 연계자료, 1983~1999	종단	사업장 폐쇄 실직 14,926명 vs. 고용 164,193명	1987/88년 사업체 폐쇄로 인한 실업	전체 정신과/음주및약물중독/정동장애/신경·스트레스관련장애로 인한 입원	공장폐쇄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은 여성에서만 전체 정신과 입원, 알코올 및 약물남용 입원, 정동장애 입원을 유의하게 증가시킴.
Schmitz (2011)	독일	독일 사회경제패널, 1991-2008	종단	노동자 23,734명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 다른 이유의 실업	건강만족도; 정신건강점수; 입원횟수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은 건강만족도, 입원횟수, 정신건강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다른 이유로 인한 실업은 건강만족도를 낮추고 입원횟수를 증가시키고 정신건강점수를 낮춤
Osthus (2012)	노르웨이	노르웨이 생활조건 패널, 1997-2003 + 유럽 소득과 생활조건 조사 2003년	종단	18~66세 노동자 1860명	대량해고로 인한 실업; 대량해고 생존	심리적 고통, 골격근 통증, 흉통	① 대량해고로 인한 실업은 실업을 경험한 해에만 심리적 고통의 위험을 9% 포인트 증가시키고, 1년 전과 1년 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대량해고 생존은 대량해고 시점과 1년 전, 1년 후 모두 심리적 고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Schroder (2013)	유럽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	종단	최소한 25년 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없는 집단 1을 해고된 적 없고 공장폐쇄만 경험한 집단 2 혹은 해고 경험 있지만 공장폐쇄 경험 없는 집단 3와 비교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	자가평가불건강; 장애보험 신청/수급;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 만성질환 개수; 약력; 과체중, 현재 날짜 인지; 우울감	① 공장폐쇄로 인한 실직은 남성에서 우울증 위험을 높이고 현재 날짜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정신건강"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줌 ② 공장폐쇄로 인한 실직은 여성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보고할 위험을 높이고, 만성질환 수가 증가하고, 과체중 위험이 높아지고, ADL과 IADL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신체적 건강" 측면에 영향을 줌
Marcus (2013)	독일	독일 사회경제패널, 2002-2010	종단	실험군: 109 커플 (남편 실업 70 커플 + 아내 실업 39 커플) vs. 통제군: 14,000 커플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	정신건강종합점수 (Mental Component Summary Scale)	①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은 실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킴 ② 남편의 실업이 부인의 실업보다 본인과 배우자의 정신건강을 더욱 크게 악화시킴 ③ 실업이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경로 파악을 위해 소득변수를 추가로 보정하면 그 효과는 약간 감소하기 때문에 실업으로 인한 가계 소득 감소는 주된 경로가 아님. 하지만 미래 소득수준에 대한 불안감이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함

번호	국가	자료원	연구설계	연구대상	폭로변수	결과변수	연구결과
							④ 아내의 실직은 공장폐쇄와 해고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정신건강의 악화는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한 반면, 남편의 실직은 공장폐쇄가 해고보다 본인과 배우자의 정신건강을 더욱 악화시킴 ⑤ 공장폐쇄와 해고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한 부인의 실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서 정신건강의 악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남편의 실직 또한 배우자에서는 더 이상 정신건강의 악화가 유의하지 않고, 본인은 유의했으나 크기가 감소.
Riumallo-Herl 등 (2014)	미국, 유럽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미국);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유럽), 2004-2010	종단	50-64세 노동자 15,055명	전체 실업;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 해고; 다른 이유로 인한 실업	정신건강 (CES-D)	①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공장폐쇄로 인한 실직은 우울수준 증가시키나, 증가정도 미국에서 더 큼 ② 미국에서는 경기침체 이전에 자산이 적을수록 실직이 우울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 하지만 유럽에서는 기존 자산이 실직의 우울증 증가를 중재하지 않음
Schiele & Schmitz (2016)	독일	독일 사회경제패널, 2000-2014	종단	16-63세 노동자 17,901명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	정신건강 (Mental Component Summary Scale); 신체건강 (the Physical Component Summary Scale); 과체중 (BMI>25)	① 공장폐쇄로 인한 실직은 실직 전 정신건강 분포의 하위에 속한 사람들의 정신건강(t)을 악화시키지만 영향력이 작고, 상위집단의 정신건강(t)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공장폐쇄로 인한 실직은 실직 전 신체건강 분포의 중하위에 속한 사람들의 신체건강(t+2)을 악화시키는 반면, 상위집단의 신체건강(t+2)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한편, 과체중(t+2)의 경우 전 분포에 있어서 공장폐쇄로 인한 실직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표 3> 사업장 폐쇄가 출산, 이혼, 자녀의 학업/노동시장경험에 미치는 영향

번호	국가	자료원	연구설계	연구대상	폭로변수	결과변수	연구결과
Charles & Stephens (2014)	미국	소득패널조사, 1968-1993	종단	2,290 커플	해고/공장폐쇄/장애	이혼 여부	① 공장폐쇄에 의한 정리해고 시 이혼 위험 증가하지 않으며 개별 해고일 때만 증가 ② 배우자(남편/아내 모두)의 해고는 이혼위험 증가시키지만 장애는 그렇지 않음
Rege, Telle & Votruba (2007)	노르웨이	행정등록자료, 1992-2005	종단	1995년 현재 혼인 상태이면서 남편이 노동 시장에 소속된 80,932 커플	1995-2000년 사업장 폐쇄 실적	이혼 여부	① 남편의 공장폐쇄 경험은 이혼 가능성 증가시킴 (11%). 공장 폐쇄는 상당한 소득 감소 가져오지만, 해당자 중 이혼/비이혼 커플 사이에 소득 차이는 없음 ② 부인의 공장폐쇄 경험은 이혼 가능성과 무관 + 특히 남편이 생계부양자인 경우, 공장폐쇄 경험 시 이혼 가능성 증가
Eliason (2012)	스웨덴	고용주-피고용인 연계자료, 1885-1999	종단	사업장 폐쇄 실적(남편) 3,692 커플, (부인) 2,786 커플	1987/88년 사업장 폐쇄 실적	이혼 여부	남편 정리해고 시 이혼 13% 증가. 부인도 비슷한 정도로 이혼 증가하지만 통계적 유의성 없음 (유의한 경우는 과거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금전적 자원이 부족한 커플에 한정)
Del Bono 등 (201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사회보장데이터베이스, 1972-2007	종단	1990-98년 1년 이상 고용된 18-35세 화이트칼라 여성: 사업장 폐쇄 실적 6,431명 고용 157,884명	사업장 폐쇄 실적	출산	① 실업의 부정적 효과 있지만, IV로 내생성 고려하면 실업의 효과는 사라짐. 정리해고 그 자체가 출산결정에 부정적 효과 ② 경력지향 일자리(정리해고 전 임금 높고 임금성장을 높았던 경우)에서 정리해고된 경우 부정적 효과 ③ 사업체폐쇄를 경험한 여성의 출산율은 6년 후까지 대조군보다 지속적으로 낮음 (실업 발생이나 기간과는 무관)
Huttunen & Kellokumpu (2016)	핀란드	핀란드 고용주-피고용인 연계자료 1988-2004년	종단	기반 조사 당시 커플 둘 다 고용된 20-40세 여성, 20-50세 남성	한 쪽 배우자의 사업장 폐쇄 실적 (1991-93년)	출산 여부/ 총 자녀 수	① 전반적으로, 여성 임금의 상승은 출산 지연과 전체 출산율 하강 효과, 남성 임금의 상승은 출산율에 작지만 긍정적인 효과 ② 부인의 실적은 출산율 저하시킴 (여성 100명 당 3건 감소, 특히 고학력에서 두드러짐 5건 감소)

번호	국가	자료원	연구설계	연구대상	폭로변수	결과변수	연구결과
							③ 남편의 실직은 부인실직보다 영구소득감소 효과 더 큼에도 출산을 저하 효과 없음 (유일하게 유의한 집단은 부인이 노동시장에 밀착되어 있고 영구소득 손실이 가장 큰 집단 - 즉 저학력, 장기근속 남성들)
Rege 등 (2011)	노르웨이	행정등록자료, 2003-2007	종단	10학년 16,164명	한 쪽 부모님의 직장폐쇄	자녀 졸업성적	① 아버지가 직장폐쇄로 실직하면, 자녀의 졸업년도평균점수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에 비해 6%까지 감소. 반면, 어머니가 직장폐쇄로 직장을 잃은 경우 그렇지 않은 자녀군과 비교할 때 점수가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②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는 지자체인 경우, 아버지의 직장폐쇄 경험은 특히 더 큰 영향을 미쳐 11%까지 성적이 감소하였음.
Coelli (2011)	캐나다	캐나다 노동과 소득 조사, 1993-2007	종단	청소년 2403명	정리해고 또는 경영자과실로 자녀 16-18세에 주요생계부양자인 부모의 실직	16-19/20세 자녀 대학등록 여부 및 출석여부	① 자녀가 16-18세인 3년간 주요생계부양자인 부모가 실직했을 때, 전체고등교육기관/대학 등록 감소 ② 특히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일 때, 더욱 영향이 크게 두드러짐 ③ 실직이전소득이 높을 때 학교등록과의 부정적 연관성이 큼
Oreopoulos, Page & Stevens (2008)	캐나다	세대간 소득 데이터베이스 + 가족등록자료, 1978-1999	종단	1980-1982년 실직을 경험한 아버지 1,376명의 10-14세 아들 1,411명 vs. 1979년부터 계속 고용된 아버지 37,882명의 아들 38,334명	1980년-1982년 아버지의 직장폐쇄 경험	아들의 5년간 수입 평균 로그값/실업급여 수혜여부/사회보조금 수혜여부	아버지가 실직을 경험한 아들은 대조군에 비해 매년 수입이 약 9% 낮고, 고용보험혜택을 5%, 사회보조금 혜택을 2% 더 많이 받음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3길 36, 2층

전화 : 02-535-1848 / Fax : 02-581-0339

홈페이지 : <http://health.re.kr> / 전자우편 : phikorea@gmail.com

후원계좌 :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시민건강이슈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상근연구원뿐 아니라 회원/비회원도 필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